

# 6월 9일 2023학년도 수능 모의평가

### 도교육청, 시행계획 발표 “11월 17일 수능 대비에 도움 기대”... 접수는 4월 4~14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오는 6월 9일 치러진다. 이에 도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안내했다고 밝혔다.

6월 모의평가는 6월 9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실시된다. 이는 2023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을 예고하는 시험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합형 수능으로 치러진다. 국어와 수학은 '공동과목+선택과목'으로 시행되며, 탐구는 사회·과학탐구 계열 구분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한다. 또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실시한다. 국어와 수학은 공동과목 75%와 선택

과목 25%로 구성, 학생들은 각 영역별로 공통과목을 응시한 뒤 선택과목 중 하나를 골라 풀면 된다. 국어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로,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전 영역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되며,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 비율은 문제 수 기준으로 50%다.

이번 6월 모의평가는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며, 2022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지

원할 수 있다.

응시 신청은 4월 4~14일까지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또 검정고시 합격자 등 출신 고등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학원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6월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이 수능 문항유형과 난이도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능 모의평가 문제 및 정답은 매 교시 종료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및 EBS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다. 성적처리는 평가원에서 본 수능 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점하며, 개인별 성적통지표 및 성적일람표 등을 제공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7월 6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이 기재된다. 절대평가로 적용하는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등급만 기재된다. 다만, 한국사 영역 미 응시자에게는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시험장별 방역 대책과 발열 자가차지 등으로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한 응시 희망자에 한해 온라인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별도의 성적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9월 모의평가는 수능 원서 접수 일정과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해 8월에 실시된다.

/정은성 기자

## “교육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 서거석 교육감 예비후보, 후보들에게 공약 반영 제안키로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교육청의 관용차와 통학차량을 100%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교육청이 앞장서 친환경정책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서 예비후보는 전북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관용차와 유치원·학교 통학차량 등 모든 교육용 차량의 교체 또는 신규 차량 수요 발생 시 전기·수소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2021년 현재 교육청 관용차량은 승용차 21대, 대형버스 14대, 화물차 1대 등 총 39대며, 유치원 통학차량의 경우 2020년 9월 현재 총 699대다.

/정은성 기자



서 예비후보는 차량들의 내구연한이 경과될 경우 100%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되며, 특히 농산어촌의 경우 이용 학생 수를 고려해 적정 크기의 통학차량으로 교체하거나 통학 택시인 '에듀택시' 운영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관련 유휴공간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키로 했다. 나아가 교육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전국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제안하기로 했다.

서 예비후보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며 “교육용 차량의 친환경차량으로의 교체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친환경·생태적 전환을 위한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학생들의 아이디어, 현실에 반영토록

자기설계 공모전 '호응' 장애인식개선 주제 동화책 제작 학생팀 '대상'

전주대-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약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25일 스타센터에서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혜선 센터장,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상행 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학업 중단,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 경로 설계,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 및 취업 상담, 청년기 경력설계, 통합상담, 전문가 심층 연계 상담, 청년고용정책 홍보 및 참여 연계, 자립 지원 등의 청년고용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행 센터장은 “도내 청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자기설계 공모전 '이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5일 전북대에 따르면 매 학기마다 자기설계공모전을 시행해 왔다. 최근 진행된 2021 학년도 동계 공모전에서는 총 64팀이 응모, 내부심사를 거쳐 우수한 성과를 거둔 3팀이 총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에는 발달장애인과 함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동화책을 제작한 'This Ability' 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팀은 평소 '장애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라는 동일한 관심사를 갖고 있던 인하(경영 20학번), 김보원(국어국문 20학번), 임채희(사회학과, 21학번) 학생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달 장애인과 협업해 발달 장애인의 그림을 동화책에 삽입하고 아동과 성인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동화책을 제작했다.

이와 함께 농대 동물자원과학과 이승석 학생 등으로 구성된 'LIFE' 팀은 기획·제작·홍보·피드백의 전 과정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밀키트라는 창업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사회대 정치외교학과 배진의 학생 등으로 구



발달장애인과 함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동화책을 제작한 'This Ability' 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성된 '포바키' 팀도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역사탐방 활동을 통해 기념 달력을 제작하고 판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인하나 학생은 “이번 자기설계 도전활동 공모전의 경험이 하나의 '성장'이었다”며 “이제 나의 목표는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남수 학생처장은 “자기설계 공모전은 학생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능동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기회를 마련해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소규모 및 비대면 활동을 확대해 자기 주도적 역량 개발과 진로 설계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제1회 검정고시 시험장소 공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4월 9일 치러지는 2022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소를 도교육청 누리집(www.jtc.gokr)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 초졸 81명, 중졸 210명, 고졸 776명 등 총 1,067명이 지원, 전주영희중, 전주이중중, 송천중고, 전주교도소 등에서 실시된다.

수험번호에 따른 응시자별 시험장소는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시험장 이외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응시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실시한다. /정은성 기자

## 허혈성 간 손상 개선 기전 밝혔다

### 전북대 배은주·한창엽 교수팀

국내 연구진이 허혈성 간 손상을 개선하는 기전을 밝혀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다.

전북대학교 배은주·한창엽 교수팀(약학대학)은 전북대 의대 박병현·유희철 교수팀, 서울대병원 서경석 교수팀, 보로노이바이오(주) 김남두 박사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허혈성 간손상 시 증가하는 'p21-activated kinase 4(PAK4)'를 억제하면 간 손상이 완화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간 연구 분야의 국제 저명 학술지인 '간학'에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허혈성 간 손상은 간이식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간이식 수술의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간조직 내 혈액공급이 차단된 허혈 상태와, 다시 혈류가 재개되면서 발생하는 급격한 활성산소성 손상을 허혈성 간 손상이며, 전 세계적으로 허혈성 간 손상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정은성 기자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치료 관점에서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이에 연구팀은 간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의 간에서 PAK4가 증가하는 것에 주목했다. PAK4 유전자 결손 동물모델과 새로 개발한 PAK4 억제 약물을 투여한 동물모델을 활용해 PAK4의 기능을 억제하면 간손상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허혈성 간손상 완화를 위해 PAK4의 기능을 억제하는 방식의 새로운 약물 개발 가능성을 처음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

http://council.jinan.go.kr

## 더 큰 열정으로 진안군민의 뜻을 모아

# 군민의 생각이 곧 의회의 생각이 되는 진안군의회가 되겠습니다.

항상 열린 의정으로 군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군민이 원하는 올바른 의회로  
진안군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안군의회**  
http://council.jinan.go.kr

| 제8대 진안군의회 | 군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바른의회!